

코로나19 속 소상공인 위한 시책 ‘착착’

군산시, 지역상품권·배달의 명수 등 성과 ‘톡톡’

군산시는 코로나19 및 산업·고용 위기지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예정되며 착착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군산사랑상품권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모델로 지역화폐 전국적 확산을 이끌어냈다.

작년에 이어 올해 5,000여원을 발행해, 지난 3월말 기준 1,634여원을 판매, 1/4분기 발행목표를 넘게 달성했다. 현재까지 누적판매금액은 1조 2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10%환인으로 시중 금융권 판매처는 75개이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0,800개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 가맹점의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상품권 사업시행 이후 지난 2018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분석결과 전체 가맹점 매출이 총 4,302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지역자금 역외 유출이 감소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액

이 상승하는 군산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모바일과 연동해 사용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은행으로 신분증만 가져가면 발급과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체크카드]출시를 앞두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권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군산 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1주년을 맞아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2020년 3월 출시한 ‘배달의명수’는 지난 1년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애플로 전국의 수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가입자수 12만7,909명, 주문건수 41만 7,191건, 101억4,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배달의 명수는 1단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군산시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시

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군산 소상공인 종합플랫폼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군산시 종합 온라인 종합플랫폼으로 확장시켜 군산시 소상공인이든 누구나 비대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이 결합된 군산중소유통공동매물류센터 건립사업도 순항 중이다.

지역 영세상인들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안동 임시화물차 공용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공동매물류센터 건립사업(3,500㎡)은 현재 건축 설계업체 선정을 마치고, 설계를 진행중에 있다.

물류센터에는 신선제품 보관을 위한 저온 냉동창고, 보관창고 등의 시설 도입으로 유통·물류기능 공동화와 효율화로 소상공인들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진작과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건립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중 개관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역감시단을 운영해 방역 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 참여 ‘코로나19 방역감시단’ 운영

익산시, 11개 동지역 자율방범대원 100여명으로 구성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역감시단을 운영해 방역 활동을 펼친다.

방역감시단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범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내 11개의 동지역 자율방범대원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감시활동은 지난 19일부터 지역 음식점, 카페 등을 위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 펼치고 있으며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오후 8~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방역감시단 운영을 통해 자연스러운 참여 방역 홍보로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할 방침이다.

방역 감시활동에 참여한 한 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많은 시민분들도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스마트 K-도서관’ 공모사업 선정

익산시가 1인 미디어를 꿈꾸는 시민들을 위한 ‘스마트 K-도서관(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1인 미디어를 꿈꾸는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은 모현시립도서관에 조성되며, 상반기에 인테리어 공사 실시와 조형시설 등 관련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스마트 K-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고 공공도서관 내에서 누구나 미디어 콘텐츠

를 제작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창작공간 조성이 완료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1인 미디어를 위한 창작공간 제공 등 미디어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1인 미디어나 비대면 수업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등 개인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문화도시 행정협의회’ 익산시, 구성·운영

익산시는 체계적으로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문화도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택남 부시장과 18개 부서 내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행정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특강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설명, 각종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행정협의회는 행정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다같이 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화재안전정보조사반 현장점검능력 향상 실습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난 19일 화재안전정보조사반 10명이 현장점검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주부 실습장(원주 이사면)에서 소방시설 조작 및 점검요령 등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주부 소방시설 실습장에서 유익한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화재안전정보조사반의 직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개개인이 직접 소방시설을 다뤄보는 체험형 교육활동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반을 추진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관련 정보를 제공해 현장에 출동한 대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DB구축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방시설도 신기술 도입으로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정보조사반을 대상으로 자동화제탑 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옥내소화전 설비 등 작동 및 조작 실습등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점검방법, 요령 등 실무점검능력을 향상시켰다.

【익산=장양원 기자

“日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해야”

군산시의회,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채택...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 철회도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일 제 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각종 조례 제·개정 및 일반안건 등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간담회 9건과 주요 사업현장 4곳을 방문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광원 의원) 등 총 2건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우민 의원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주한일본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 최창호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의회에 전달했으며, 배영일·송미숙·설경민·김중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우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고자 하는 오염수의 70%는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 125만이라는 것은 바다에 독극물을 쏟아붓는 행위와 다를바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의 해양 생태계 오염은 물론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방사성물질에 오염시키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양수산도시인 군산은 직격탄을 맞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은 물론 전 세계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 최창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으로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또다시 지자체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여서 김제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결정신청 시 측량성과도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반려한 것은 물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히 새만금 지역의 임시 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프롬프터가 도입돼 선진화된 의사진행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